

## 2021년 3월 11일 메시지 '지진 재해로부터 10년, 후쿠시마의 현재와 미래'

그 날로부터 10년이 되었습니다.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는 아름답고 평화롭던 우리의 고향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과 보이지 않는 방사선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피난을 가 가설 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성장해 성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실종 상태인 채로 몸도 마음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세월을 생각하면 ' 벌써 10년인가'라고도 '아직 10년인가'라고도 느껴집니다.

*"10살 되는 해 여름 처음으로 성묘를 하다"*

*히가시야마 초등학교 이시다 하루 씨(딸)*

*"마음속을 처음으로 딸에게 보여주는 여름"*

*이시다 사토시 씨(아버지)*

우리는 원전 사고로 인한 지역 사회의 분단, 현 이미지 하락에 따른 피해, 차별·편견과 10년에 걸쳐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에 있습니다. 자유와 따뜻함을 빼앗기고 불안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10년 전 그때처럼 당연했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날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는 사람들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말아 주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세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아이즈가쿠호 고등학교 히라코 나나미 씨)*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한 발 한 발 부흥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 지시 구역은 5분의 1로 축소되었고 도로와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학교와 병원이 재개되면서 피난해 있던 사람들도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로봇, 재생 가능 에너지 연구 거점이 건설되고 일본 청주, 과일을 비롯한 후쿠시마현 생산품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자부심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난을 떠난 사람이 여전히 3만 명을 넘으며 당시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이 진행되면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해 고립감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서 잊혀지고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로를 향한 긴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년이 지나면서 빛과 그림자의 명암의 차가 커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강해졌고 성장했으며 끈끈한 연대감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진 재해가 없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의 인연과 힘을 합친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민 여러분과 후쿠시마에 마음을 써 주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고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진 재해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신종감염증이라는 새로운 재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흥을 알리는 꿈의 무대를 목표로 했던 올림픽과 고시엔(고교야구 대회), 합창 콩쿠르 등이 연기되거나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의기소침해 있을 수만은 없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다”라며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신규 사업과 혁신을 불러일으키려는 경영자들, 이미지 하락에 따른 피해에 질 수 없다며 지혜를 모으는 생산자들, 부흥의 책임을 떠맡겠다는 이주자들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 의욕적인 도전을 계속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자들의 자랑스럽고 성실한 모습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빛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 지진 재해 10년이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해는 되지 않겠네요. 다만 고향에서 신년을 맞을 수 있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첫걸음은 떴었습니다.”*

*후타바마치 쇼하쓰 신사 신관 다카쿠라 히로히사 씨)*

“다시 바다에서 놀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밭에서 야채를 수확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되기를”, “고향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등, 어르신들부터 아이들까지 각자 꿈꾸는 부흥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미래를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 기쁨과 행복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흥입니다.

*“천 년에 한 번 있을 사고라고 일컬어지는 지진 재해와 그 사고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매우 굳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알려 나갈 것입니다.”*

*오다카중학교(당시) 훗타 사오리 씨)*

동일본대지진·원자력 재해 전승관이 개관했습니다. 지진 재해를 모르는 새로운 세대에게 재해의 실상과 부흥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닌 후쿠시마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다음 10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향을 재건해 활력과 웃음이 넘치는 후쿠시마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후쿠시마를 우리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1년 3월 11일

후쿠시마현 지사,우치보리 마사오